

해남군, LPGA 준비 분주…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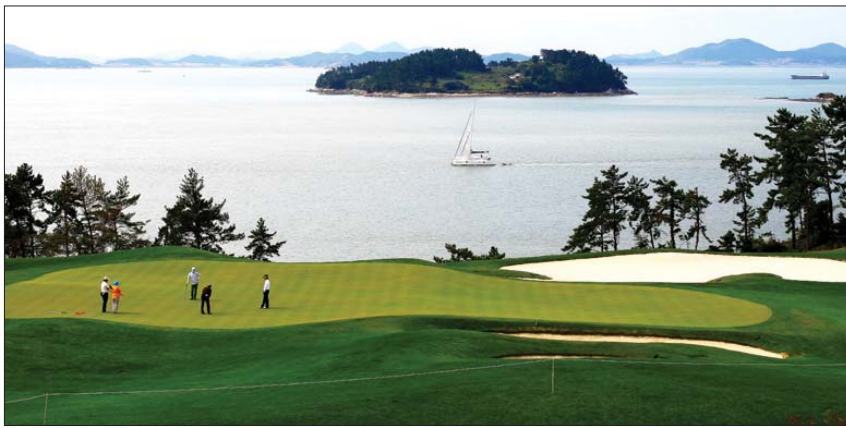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16일부터 LPGA 정규투어 진행
주차장 확보 등 관광수요 대응
명현관 군수 “군 위상 드높일 것”

해남의 10월은 푸른 바다를 가르는 시원한 스윙으로 시작한다.

회원면 소재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대회로, 호남권에서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PGA대회 실황은 전 세계 170여개국, 약 5억 7000만 가구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회기간 동안 주최처에서는 5~6만여명의 관람객들의 현장 방문을 예상하는 등 스포츠 관광수요가 대거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장 전경

/해남군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해남에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링크스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환상적인 해안경관을 품은 시사이드(sea-side) 코스로 대한민국 10대 코스로 선정된 명문 골프장이다.

남도의 아름다운 가을 날씨 속에서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명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예약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군은 대회준비에 속도를 높이

고 있다.

해남군은 군과 군의회, 지역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총 망라된 범군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준비와 교통·안전·의료 대책, 지역 홍보 전략 등 협력방안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 대회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응급의료부스와 자원봉사서비스도 마련한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세계에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이다.

이번 영암군 수소도시 선정은 지난 1기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호남권에서 2개 이상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이 최초다. 이로써 전남은 수소 산업 육성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김해시

“웹툰 페스티벌’ 놀러오세요”

김해시는 청년이 머무르고 즐기며 창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 오는 18일 ‘2025 김해 웹툰 페스티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김해 웹툰 페스티벌은 10월 18일 김해올하카페거리 일원에서 개최되며 웹툰 전시, 작가 토크쇼, 창작 체험, 청년 플리마켓, 지역상권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65일 운영 가능한 청년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영천시

‘영천愛 와인&다인’ 참가 접수

영천시는 오는 10월 12일, 26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와이너리에서 미혼남녀를 위한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 ‘2025 영천愛 와인&다인(wine&din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남 기회가 부족한 청년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영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접수하면 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의회-CJ푸드빌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 ‘맞손’

경남도의회는 9월 30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 고성군, 고성군의회, CJ푸드빌과 함께 고성 가리비를 중심으로 한 경남 수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적 소비망과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CJ푸드빌과의 협력해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및 가치 향상, 상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판로 확대뿐 아니라 가리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공품 개발로 이어져, 경남 수산업 전반의 부가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남도, 우주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국제우주대회 참가… 투자 유치 나서
유럽·호주 등 기업·기관 연이어 협약

경남도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우주대회(IAC 2025)’에서 30일(현지 시각) 글로벌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유럽, 호주, 국내 기업들과 연이어 협약을 맺으며 우주 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포함해 리투아니아 Space Hub LT, 호주 CTS(Corvus Technology Solutions), ANT61, 한국 우주로테크, 한컴인스페이스, 모멘텀스페이스 등 세계 우주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리투아니아 혁신청 소속 SpaceHub LT ▲호주 CTS ▲호주 ANT61 ▲국내 우주 기업 한컴인스페이스, 우주로테크, 모멘텀스페이스 등 6개 기업 및 기관과

투자·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호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 성과다. 유럽 우주 산업 허브 리투아니아와 우주 데이터·도킹 기술의 호주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과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기술 협력,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진출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경남은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비전을 목표로 아시아 최고의 우주항공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경남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협력과 투자 기회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바이오헬스 혁신거점’ 비전 공유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참가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2025’에 참가해 포항의 바이오헬스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지역 바이오산업 비전을 알렸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서 포항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포항의 독보적 바이오 연구 인프라 ▲지역 바이오기업의 혁신 역량 ▲포스텍 의대 설립 당위성을 소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포항바이오산업협회(회장 김성영)와 공동 참여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오헬스 혁신거점으로서의 포항의 비전을 함께 알렸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2025’ 포항시 홍보 부스 앞에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포항시



지난달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국회 APEC 특위 의원 등이 APEC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우원식 국회의장·국회 APEC 특위 경주 방문

경북도, APEC 주요 행사장 현장점검

우 의장·특위, 정상회의장 등 확인
준비기획단, 경주박물관 활용 건의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경주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국회 APEC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의원 14명을 맞아 APEC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특위 소속 의원들은 AP EC 개막을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라한호텔, 경제전시장, 국립경주박물관 등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에서는 APEC 준비기획단 임기모 부단장보의 준비 현황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고에 앞서 김기현 특위 위원장과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국립경주박물관 내 행사장을 주요 정상 양자회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고, 외교부는 상부에 보고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우 의장과 특위 일행은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를 확인하고, 이어 라한호텔 만찬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갈라만찬 문화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양정웅 예술감독이 만찬 문화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무안군, ‘지자체 일자리대상’ 국무총리 표창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 수상

전남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1위이며 일자리 공시제 부문 4년 연속 수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본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

체를 선정한다.

무안군은 2022~2023년 최우수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일자리 대상 수상은 산·학·관 등 일자리 협업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취한 쾌거”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더불어 우리 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